

황우석 박사는 2005년도 봄에 세계적인 업적을 발표했다. 정자가 아닌 체세포를 이식해서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었고 여러 환자들의 체세포를 사용해 난치병 치료에 있어서 큰 벽인 면역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가을에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줄기세포 허브를 설치하는 등 눈부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줄기세포 연구자 중 한 명인 세튼 박사는 황 교수와 1년여 동안 호흡을 맞추며 세계줄기세포 허브 출범에 기여 했지만 돌연 황 교수가 연구에 사용한 난자 취득과정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며 참여를 거부할 선언했다. 그것도 11월 12일 워싱턴 포스트라는 자국의 미디어를 이용한 일방적 통보였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영연한 우정은 없는 것인지 아쉬움을 느낀다. 왜냐하면 복제연구의 선구자였던 세튼은 황 교수를 세계 학계에 알리는데 기여했던 인물로, 황교수 역시 2004년도 세계적인 학술지에 연구업적을 발표 할 때 세튼을 공동 저자로 올려 명예에 기여했다.

그런데 갑자기 결별을 선언한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리고 명분으로 내세운 난자추출문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왜냐하면 정말 그것이 문제라면 지난해 한국의 생명윤리위원회에서



불자 세상보기

곽만연 동대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황박사와 연구윤리의 '숙제'

난자의 출처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을 때 이미 결별했어야만 했던 것이다.

때문에 세튼이 혹시 다른 이유 때문에 결별을 선언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예를 들면 미국의 연구의 주도권과 줄기세포 허브의 설치장소 문제 등 다른 숨은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보도하는 언론기관도 조심해야 한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와 과학기사를 쓰는 기자에게는 국경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맹목적으로 외신을 보도 할 것

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판단하고 분석하는 기사가 아쉽다.

그리고 황교수도 이번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작년년부터 생명윤리 윤리위원회에서 줄기세포 제기하고 있는 생명윤리문제이다.

많은 이들이 질병치료 목적의 배아연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치료용 배아 복제는 언제나 복제된 배아에 대한 연구를 필연적으로 함의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배아복제를 허용할 경우 미끄러

운 경사길 논리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인간 복제의 위험이나 인간의 난자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 나아가 생명자체를 존중하는 마음까지 사라져 버릴 수 있다고 윤리학자와 시민 단체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다행히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2005년 1월 1일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다행히 이 법률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배아연구를 허용"하고 있지만 인간 배아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지금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보다 시급하다.

더불어 체세포 복제기술을 통한 난치병 치료 차원의 치료용 배아복제 등의 연구문제는 그 연구의 인간과정 전후뿐만 아니라 중간과정에서의 확인과 연구절차를 확립하고, 연구기준에서도 공개적인 논리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폭넓고 심도 있는 전 국민의 의견 수렴이 선행된 뒤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이럴때라야만 배아연구자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배아연구 문제를 좀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황우석박사도 이제 생명윤리 윤리위원회의 견해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어야만 한다.

불자의 눈

'불교와 사회'... 연구실을 핵심으로 하는 불교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두 가지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러나 '불교의 사회화'라는 것이 아직도 불교계의 커다란 화두로 던져져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교와 사회 사이에 있는 현실적 거리가 크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이번에 창립과 더불어 세미나를 여는 '불교와 사회' 포럼은 지성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거리를 메꾸어보고자 하는 하나의 새로운 움직임이다.

이 새로운 시작에는 이미 이루어져 왔던 비슷한 시도들과 차별성을 갖을 수 있는 몇가지 요소를 반드시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를 내세우면서 시작하여 불교를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적당주의적 태도를 철저히 벗어나, 각 분야의 전문지성들이 주제선정부터 문제의 파악, 해결책의 제시까지 전문가로서의 엄정하고 치열한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불교와 사회 포럼'에 거는 기대

새로운 시각에서 시작하는 고감한 시도는 바람직하겠지만, 불교적인 측면에서, 또 각 분야의 전문영역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감수하여 점차 다듬어가겠다는 열린 자세가 바탕에 있어야 한다. 한편의 공개적인 토론의 자리를 열기 위해서 몇배의 시간 준비에 힘을 기울여야 비로소 불교계로부터도, 사회 문제의 각 영역으로부터도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포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 불교는 이렇게 위대하며 사회문제를 이렇게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외쳤던 많은 시도들이 한갓 공허한 외침으로 스러졌던 예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포럼이 해쳐가야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반면, 포럼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불교계의 충분한 열망 또한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시대의 공동된 화두를 잘 선정하여, 집약적이고 심도있는 토론을 이어 나간다면, 열린 무대 위에 사명감 지닌 불자 지성들이 모여 '불교로 세상을 말하고 세상으로 불교를 말하는' 기풍이 펼쳐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불교와 사회' 포럼의 성실한 노력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류행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내는 하나의 흐름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들었다

업적을 저질렀어도 마음을 돌려 고백하고 앞서의 잘못을 반성해 깨닫고 마음을 집중하여 거듭 참회한다면 과보를 받지 않는다. <분별업덕보유장>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과오와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한다. '상황논리'와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핑계를 대기에 바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김대중 정부 시절 도청 논란'에서도 이런 모습은 다시 확인된다. 당사자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보고받은 바 없다"라는 뻔한 대답에 "결백을 확인한다"며 결연한 표정을 지어 보이기가 했지만 나중에는 "유구무언(有口無言)"이라며 감옥으로 갔다.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당들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여당 시절에 행했던 '원조범죄'에 비하면 김대중 정부의 도청은 '관습범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도청은 거대 국가권력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이며 도청 결과가 어떻게 쓰였는지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한 음모"라며 한 술 더 떠다.

이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관련자들의 뻔뻔스러움이다. 거의 후안무치 수준이다. 누구하나 "권력유지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도청한 것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며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나 정당은 없다.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참회하고 반성하면 자연스럽게 용서해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부처님께서도 잘못을 반성하면 과보를 받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았던가? 추위엔 날씨만큼이나 쌀쌀한 요즘 세상이다.

유철주(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출가, 연령 높은 만큼 교육질도 높여야

조계종의 출가연령제한이 최근 50세로 완화됐다.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어 온 것으로 안다. 그러나 승단 사회 속에 공존하는 엄연한 조직체다. 따라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한 이번 결정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조직체는 질서가 존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경쟁사회에 뒤지지 않고 건강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다.

작금에 불교가 타종교에 밀린 이유도 따지고 보면 과거 조직이 엉성하고 구성원들의 교육과 수행의 질이 저하된 탓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이 단지 30~40년 만에 세계 최대 기독교국으로 성장한 이유를 살펴야 한다. 소갈머리가 자아 남의 종교를 비교해 얘기만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남의 떡이 먹음직스러우면 시기하지 말고 나도 만들어 먹으면 된다.

외회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불자 국회의원 숫자가 타 종교에 비해 적고, 불자 정부 고위 공직자 숫자 역시 마찬가지다. 소위 사회 엘리트 그룹들의 종교 영향력이 부족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이 출가 연령을 50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그러나 지금의 인문학의 세계적 추세와 급변하는 대학의 현실이 그러한 주장을 그대로 고수하기에는 여의치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한해 100명이 넘는 인원이 불교대학을 나오고, 석사, 박사 수시 명이 배출되는데도 이들이 배운 것을 어디서든 마음껏 펼칠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이 옳은가 반문하고 싶다.

이미 오래전부터 불교대학에 이론뿐만 아니라 포교, 사회복지, 종교행정, 문화재 등 실용학문을 접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고 이는 모두가 공감하는 바였다.

그러나 막상 11월 11일 공청회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정말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리고 인문학의 위기라고 하는 시대에 불교대학이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한다면 그러한 식의 대응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불교대학 인사들에게 쏟아진 비판과 우려에 대해 귀를 막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불교대학 교수들은 한국불교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변화하고, 학문적 성과에서도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도록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 못하면 언제나 기득권에만 얽매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윤주영 (서울 광진구 중곡동)



Large advertisement for Buddhist pilgrimages to India. Title: '부처님의 고향 "인도" - 불교 성지순례'. Includes details for various tours with prices and dates.